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### 영국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증대

- 1/4분기 중 영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0.5%를 기록하여 전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탈피했으나 성장 모멘텀은 아직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.
  - 영국은 1/4분기 중 건설업부문 위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부문이 0.9% 성장하고, 제조업부문이 1.1% 성장함으로써 전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남.
  - 그러나 동절기 한파로 인한 경기후퇴가 회복되는 수준에 그침으로써 경기는 2010년 3/4분기부터 담보하는 상황이 시현됨.
  - 다만, 고용, 소비, 생산 부문 등에서 미약하나마 꾸준히 회복세를 보임으로써 경기침체 재발에 대한 우려는 낮아짐.
- 반면, 영국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는 2010년 4/4분기 중 3.4% 상승하고, 2011년 1/4분기에 4.1% 상승함으로써 상승세가 가속됨.
  -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과 식료품가격의 상승, 부가가치세 인상, 소비세 도입, 파운드화 약세 등에 기인하여 높아지는 추세임.
    - 이러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로지역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.4~2.5%p 상회하는 수준임.
  - 다만, 아직까지는 소비자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.
- 영란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우려되나 아직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못하고 정부 지출 삭감 및 가계부채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로 판단함.
  - 영란은행은 조만간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이끈 요인들이 해소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장기 목표치인 2%대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함.
  -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적자재정 축소를 위한 정부지출 삭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성장모멘텀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됨.
    - 영국의 2010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10.4%로서 유로지역 평균수준(6.0%)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아일랜드(10.5%), 포르투갈(9.1%)과도 비슷한 수준임.
  - 또한 영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부채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당분간 저금리 기조 유지가 필요한 상황임.

(Wall Street Journal 등 4/28, Economist 4/28, Eurostat 5/4)